

전주시, 국방분야 중기 육성 성과

전주시가 국방분야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국방벤처센터(센터장 정운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진입을 통한 국방분야 핵심역량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첨단벤처단지에 등지를 뜬 국방기술제품지원 전주국방벤처센터는 기업지원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멘토링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접목시키는 군사융합과제 발굴 지원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

23개 협력업체 발굴·지원 2007억원 수익 창출

개발지원 △경영컨설팅 및 홍보 등 경영지원 등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국방분야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23개 협력업체가 총 2007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실제,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인 (주)엘티씨가 최근 교량시설용 임펠러 과제사업에 선정되는 등 7개 업체가 신규로 국방 '군수분야 사업과제'에 선정됐다.

전주국방벤처센터는 올해 신규로 (주)바르텍시너지와 (유)이젠 365 등 2개 업체가 '무선원격제어형 화생방 제독 로봇'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국방부 주관 우수상품품 구매

제 도입에 따라 (주)오렉스의 '이온수처리기'와 원광이엔텍(주)의 '연료절감형 자동차 클러치'를 국방분야에 시험 적용토록 알선하는 등 7월말 현재 데크키본 등 15개 업체에서 군수분야에 190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국방벤처센터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인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의 '냉동가공밥'이 2017년 신규 급식품에 채택될 수 있도록 수개월에 걸친 협업을 추진, 오는 9월중 최종 심의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전주국방벤처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중소·벤처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방산제품은 물론 민수 상

용화 제품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적극 안내 및 컨설팅 할 계획이다"며 "사업영역도 전북 도내 기업으로 확대해 전국 최우수 센터로 도약을 목표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국방분야에 접목시킬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방분야에 관내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기업 역량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길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국방벤처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매년 4억원

전주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900여 가구 대상 1:1면접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16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주시 표본가구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보건복지부 지정)와 협력해 실시하는 법정조사이자 국가승인통계다. 시민들의 주요 건강행태를 파악하는 이번 조사는 건강문제를 도출해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결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등에 활용된다.

대상은 전주시 33개 행정동 900여 가구이며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방문해 1:1면접조사(전자조사표 이용)해 노트북으로 진행)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18개영역, 161개 조사문항이다. /김영재 기자

조사기간 중 조사원은 명찰이 부착된 복장(티셔츠)을 착용하고 차량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조사 참여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이 주어지며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리플렛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완료(2017년 3월) 이후 일괄 파기된다.

김경숙 전주보건소장은 "이번 조사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조사원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전주시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6월부터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지방세·국세에 대한 고민이 있는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실시하는 자발적 재능기부 활동이다.

현재 전주에는 시로부터 위촉을 받은 26명의 마을세무사들이 33개동을 나누어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세금고충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실제, 마을세무사들은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과 재산세, 지방세 불복청구 방법 등 40여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주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 상담을 실시했다.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 주민은 시청과 구청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된 담당지역 마을세무사 명단과 시·구 홈페이지(마을세무사 배너)를 통해 상담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전화와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전세삼 전주시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사위의 즐거움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16일 오후 소방학교에서 신임소방사 교육생들이 훈련을 마친 뒤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다.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소득층 여성용품 지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오는 26일까지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국P&G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6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생리대 1년분 240개, 4400만원 상당의 총 5200여개의 여성용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여성용품 생산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거나 신발 깔창 등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추진된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388청소년지원단 연계사업이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 복지지원단 소속의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국P&G의 후원을 받아 관내 보육원,쉼터, 그룹홈 등 55개 기관, 650명의 만 9세~24세 위기(가능)청소년 및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게 됐다. /김영재 기자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한참 예민할 나이인 청소년들이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게 지원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국P&G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주YWCA(회장 최명희)가 전주시로부터 위탁 받아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년 상담복지전문기관이다.

문의 및 신청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27-1005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립 호자도서관 개관

서부권 지역 주민들 지식·문화공간 기대

전주 서부신시가지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지식·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주시립 호자도서관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1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광수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과 도서관 관련 운영위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번째 시립도서관인 호자도서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시는 호자도서관을 시민들이 몸과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힐링'을 특화분야로 정하고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호자도서관은 효자동 2가 이바더 근린공원 주변(1314-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1억원(국비24억, 시비67억)을 투입, 대지면적 2500㎡에 연면적 3220㎡의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됐다. 또, 지난해 개관한 건지도서관처럼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 랜드마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1층은 어린이·유아자료실, 2층은 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 3층은 열람실·휴게실, 4층은 사무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일반도서 1만5400권과 어린이도서 1만8300권 등 총 3만 3700여권의 장서가 구비됐다.

도서관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자동대출반납시스템 및 좌석발급 시스템, 종합자료실내 전자책 열람 공간 등 지식정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편리

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호자도서관 개관으로 서부신시가지 등 전주 서부권 주민들이 책을 매개로 심리·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자도서관은 17일 오전 9시부터 도서대출 및 독서회원증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에 앞서 호자도서관은 지난달 18일부터 총263석의 열람실을 사전 개방했다. /김영재 기자

순전자 폭행한 2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김선용 판사)는 16일 뒤 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14일 저녁 8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지인과 함께 A(19)군과 B(19)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날 지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뒤 따르던 차량의 운전자 A군이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